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26년 1월 제204호



천주교마산교구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또는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의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자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자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자 지난번 모임 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자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 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 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묵상한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써보기
- [5] 함께하기
- [6] 마침기도



5. 2026 교황님 기도 지향의 이해 돕기

진행자 14쪽 '교황님 기도 지향의 이해 돕기' 를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자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소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자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가정을 위한 기도 / 병자를 위한 기도

진행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가정을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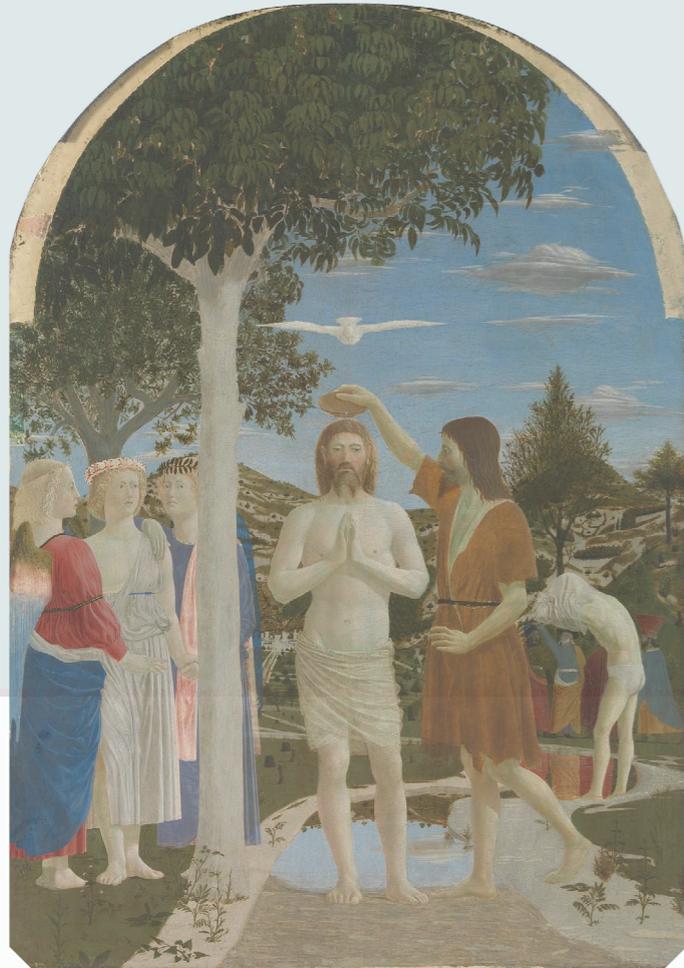
9. 마침성가

- ▶ 봉사자는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의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 3,13-17)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작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연도: 1448년~1450년
재료: 패널 위 템페라 채색
크기: 167x116cm
위치: 내셔널 갤러리, 영국

그림의 중앙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의 몸 위로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몸은 핑크빛에 가까운 흰색으로 채색되어 부드러우면서 견고하며 입체적인 느낌을 준다. 오른쪽 배경에는 뒤이어 세례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남성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왼쪽에는 세 명의 천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흐르는 강에는 하늘이 반사되어 그려져 있다. 흐르는 강물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는 상징을 드러낸다. 예수님 옆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로 무성한 잎이 반짝이고 있지만, 예수님 뒤쪽 산의 나무들은 잘려 나가 밀동만이 남아있다. 이것은 수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정지된 분위기인데, 이러한 침묵과 정지된 느낌이 그림에 영원성을 부여한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번 “용기장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주소서.
- 주님, 제 삶을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15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16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품위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당시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로 덮어왔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 곧 성령의 옷, 품위를 입고 얻게 되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위를 입은 하느님의 사람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품위를 입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옷에 맞는, 그 품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을 기회를 피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더욱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주님의 닮은 삶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도 더욱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마태오 3장 16-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말씀나누기 -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진행자 주교님의 26년 사목교서에 따라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봅시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어가는 희망의 공동체_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열려있는 너그러운 본당 분위기 만들기]

- ☺ 공동체와 함께
 - 본당 어린이들이 전례와 교리 시간에 안전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유아실, 교리실, 영유아 전용 성전 좌석 등)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기
- ☺ 내 삶 속에서
 - 본당 미사나 행사 중 영유아들의 작은 소란이 일어나도 쳐다보지 않기
 - 유아실 밖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부모들에게 눈치주지 않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번 “용기장이”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요한 1,29-34)



렘브란트가 그린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갈색, 황토색, 회색, 노란색이 감도는 흰색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색감을 낮추어 마치 흑백사진처럼 보이지만,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자 요한은 빛을 듬뿍 받아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다. 요한에게 물려드는 군중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렘브란트는 절충주의를 선택했다. 복음사가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다양한 인종인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 아메리카 인디언까지 등장시켜 요한의 설교에 대한 보편성을 보여 주려 했다. 빛은 광야에서 외치는 하느님의 음성을 알려주고, 요한의 주변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밝게 처리했지만, 군중의 대부분은 세례자의 호소에 관심이 없고, 저마다 자기 볼일을 보고 있어 요한에게서 멀어질수록 어둡게 처리했다. 정면 중앙에 성직자 복장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은 기분이 상한 듯이 요한의 설교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들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렘브란트는 복잡한 세상의 풍경처럼 다양하게 묘사함으로써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힘겨웠던 삶을 떠올리게 하지만, 요한의 발아래 놓인 세상의 죄악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씻어줄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작가: 렘브란트
연도: 1634년
재료: 목판 위 캔버스에 유채
크기: 63x81cm
위치: 국립미술관, 독일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제 몸과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 주위에 있는 성물을(십자가, 성경, 묵주 등등)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께 향해 있고 의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성물이 있습니다. 집에 걸려있는 십자가, 기도 책상에 있는 성모상, 기도 드릴 때 사용하는 묵주, 하느님 말씀이 담긴 성경, 성경 말씀을 그린 성화 등등.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성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물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화를 보며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성물들을 나를 꾸며주는 장신구처럼, 예술품을 모으는 장식품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은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하느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성물을 바라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의탁하고 기도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1장 29-30절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말씀나누기 -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진행자 주교님의 26년 사목교서에 따라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봅시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어가는 희망의 공동체_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열려있는 너그러운 본당 분위기 만들기]

- ☺ 공동체와 함께
 - 본당 어린이들이 전례와 교리 시간에 안전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유아실, 교리실, 영유아 전용 성전 좌석 등)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기
- ☺ 내 삶 속에서
 - 본당 미사나 행사 중 영유아들의 작은 소란이 일어나도 쳐다보지 않기
 - 유아실 밖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부모들에게 눈치주지 않기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마산교구 구암동 성당은 봄이 되면 진달래꽃이 아름다운 천주산 자락 아래 자리하고 있으며 설립일은 1987년이며, 주보 성인은 성모승천입니다. 구역은 5개 구역(구암1동, 2동, 소계동, 합성동, 구역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암동 성당은 2025년 희년을 맞이하여 주임 신부님의 계획아래 매월 희망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최양업 신부님 시복시성의 기원과 우리 모두의 희망과 소원을 담고 떠나기에 순례는 참으로 은총과 행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반원 전체는 못 가지만 몇몇은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공동체는 1구역에 속하며 현대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를 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소공동체 모임이 있는 날에는 하던 일도 잠깐 멈추고,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한 달동안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일이나 어려움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로,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각자가 느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 나눔을 시작으로, 소공동체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나누는 마음깊은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의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각 가정을 돌아가며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날이면 맛있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기쁨과 반가움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 속 형제자매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할 때 복음 나누기 중 생명의 말씀 쓰기는 물론 다 같이 말씀나누기를 하며, 소공동체 모임이 끝난 후 매월 첫 째주와 셋째 주에는 구성원 모두가 성당으로 가서 십자가의 길과 성체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축복임에 감사드립니다.



1월의 교황님 기도지향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공식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 하느님의 말씀」

제6장 교회 생활과 성경

21. 교회는 언제나 성경들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히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에서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식탁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의 빵을 취하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26.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신자, 특히 수도자들이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필리 3,8)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나, 영적 독서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의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경 강좌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경에 다가가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 프란치스코 교황」

제3장 복음 선포

158.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말에 많이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74. 모든 복음화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거행하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복음화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스스로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복음화하지 못합니다. 하느님 말씀이 반드시 “점점 더 온전하게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례에서 경청하고 거행하는 하느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르며 그들에게 내적인 힘을 주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참다운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문헌의 가르침 살아내기

[하느님의 말씀 주일 특집] 잠자는 우리집 ‘성경’ 깨워볼까?

신자라면 누구나 한 권씩은 지니고 있는 성경.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맞아 잠자는 우리 집 성경을 깨울, 성경 활용 방법을 전한다.

교회는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한다.(「계시헌장」 21항) 이 가르침은 성경을 신중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라는 뜻이 아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필리 3,8)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3항) 예로니모 성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활용의 기본은 자주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안에서 말씀을 자주 접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펼쳐두는 것이다. 미사가 봉헌되지 않는 시간에도 제대 위에 성경을 펴놓듯이, 집 안 기도상이나 독서대, 책상 등에 성경을 펴두는 것은 더 자주 성경 말씀을 읽는 첫걸음이다. 성경을 펴놓을 때는 그날 독서에 맞춰서 펴 놓는 것이 좋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기도할 때도 유용하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기도문 삼아 읽어왔고, 지금도 시간 전례의 대부분이 독서, 시편 등 성경 말씀으로 이뤄져 있다.

말씀을 읽기에 그치지 않고 묵상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를 해보는 것도 좋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는 렉시오 디비나는 12세기경·독서·묵상·기도·관상의 단계로 정착됐다. 독서에서는 성경의 일정한 부분을 소리 내서 반복해 읽고, 묵상을 통해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찾으려 하며, 기도로 그 말씀에 응답한다. 마지막으로 관상은 하느님 현존과 일치를 이루고 나아가 자기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다.

성경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적어 보는 성경 필사도 성경 활용의 좋은 방법이다. 친구약을 모두 필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성경 중 좋아하는 책을 골라 한 권씩 필사하는 방법도 성경 말씀을 읽고 새기는 데 도움이 된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총무 박기석(요한 사도)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제정하면서 살아 있는 말씀과 맺는 관계가 주님 백성인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길 강조하신다”며 “우리 생활 안에서 성경이 장식품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은 거룩한 책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 가톨릭 신문, 발행일 2022-01-23, 제3279호 10면) - 원문보기

가정을 위한 기도

-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 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아무)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 아멘.